

샤먼으로서의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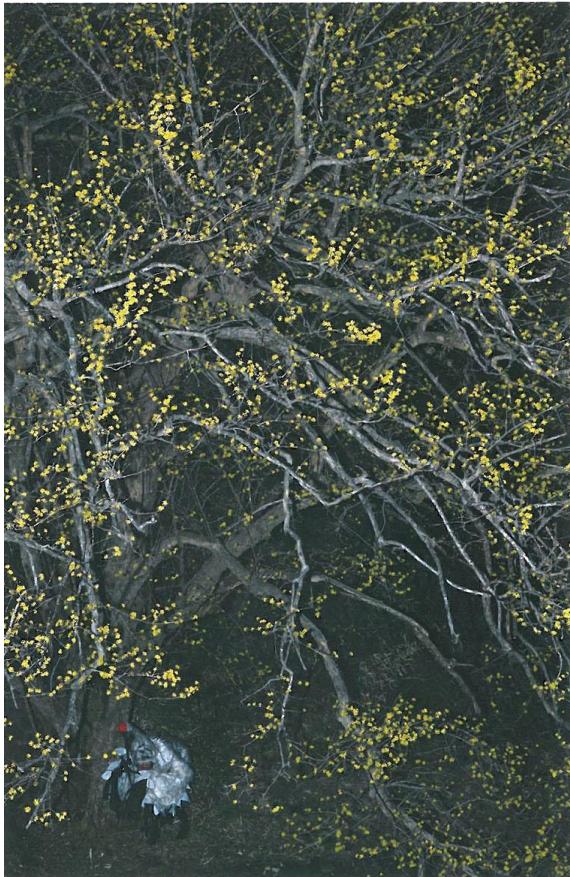
March, 2014 | 이슬비 에디터

page 1 of 8



Contents

Vol. 350 / 2014.03



특별기획 084

사면으로서의 예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속인, 김금화 만신을 다룬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의 영화 <만신>이 3월 6일 개봉한다. 사면을 뜻하는 무당 무(巫)를 파자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곳에서 사람들(人)이 춤을 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예술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명화 단계 이전에 종교와 예술은 분리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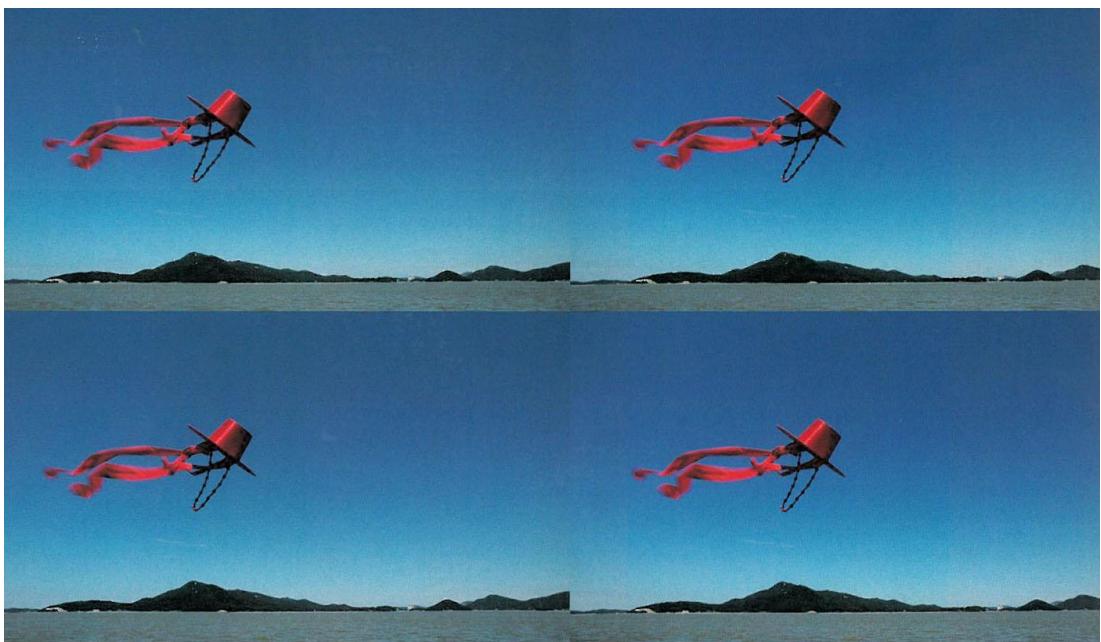
원시예술은 주술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예술가는 꼭 사면으로서 영적인 기운을 불러들여 병든 공동체의 회복을 꾀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 왜곡된 근대화로 인해 한국의 전통 문화, 신화, 전설, 무속신앙, 애니미즘 등과 같은 한국의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 사고는 그동안 현대적 삶과는 거리가 먼 미신 혹은 비이성적인 산물로 치부되며 부정적 대상으로까지 어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예술가들은 예술에 내재된 본래의 치유적 의미를 환원시켜 근대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때 자연, 공동체, 판타지, 코스몰로지 등에 대한 관심은 근대성의 위기 이후 예술가들이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자 지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작업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저항이자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체가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한 시대에 예술을 통해 공동체 삶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다. 『월간미술』은 자신만의 고유한 청작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이시대 '영매(靈媒)'로서 예술가의 면면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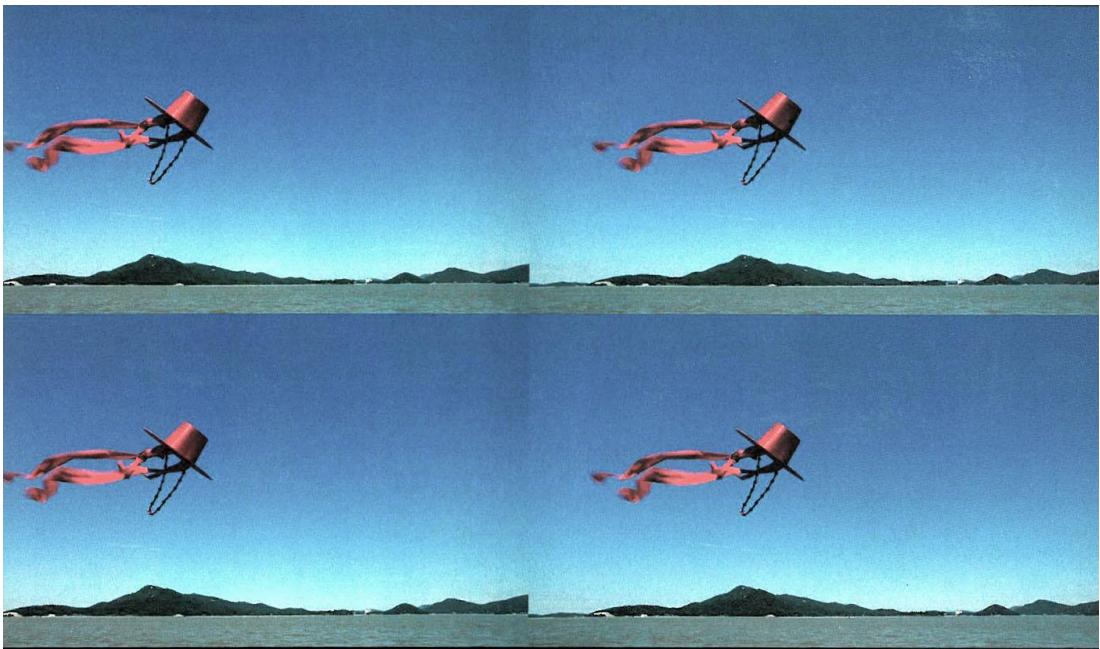
오늘의 사마니즘과 감총으로서의 정치_김남수
사면/리얼리즘 흘어짐과 한 몸의 미학_김종길

표지·작가 박찬경 (사진·차주용)



special feature

artist as a shaman



샤먼으로서의 예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속인 김금화·단신을 다룬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의 영화<반신>이 3월 6일 개봉한다.

샤먼을 뜻하는 무당 무(巫)를 파자하면, 하늘(一)과 땅(二)이 연결(工)되고, 그곳에서 사람들(人)이 춤을 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예술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명화 단계 이전에 종교와 예술은 분리불가능하다.

원시예술은 주술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예술가는 곧 샤먼으로서 영적인 기운을 불러들여 병든 공동체의 회복을 꾀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 왜곡된 근대화로 인해 한국의 전통문화, 신화, 전설, 무속신앙, 애니미즘 등과 같은 한국의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 사고는 그동안 현대적 삶과는 거리가 먼 미신 혹은 비이성적인 신물로 치부되며 부정적 대상으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예술가들은 예술에 내재된 본래의 치유적 의미를 훤히 시켜 근대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때 자연, 공동체, 판타지, 코스모로지 등에 대한 관심은 근데성의 위기 이후 예술가들이 꿈꾸는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자 지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작업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저항이자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체가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한 시대에 예술을 통해 공동체 삶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다. 『월간미술』은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이 시대 '영매(靈媒)'로서 예술가의 면면을 살펴본다.





박찬경

영화는 궂의 화장된 개념

영화와 분단을 주제로 작업해왔는데 〈신도안〉, 〈피란민장〉, 〈한신〉 등 최근 작품은 저속해서 민속신앙과 무속을 다루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누구나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듯이, 〈신도안〉을 시작하기 전 몇 년은 생활도 고단하고 정신도 피폐했다. 물론 그전에도 종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때는 절이나 산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았다. 신도안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국의 종교문화에 끼친 근현대사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북한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대 타자라고 생각했는데, 전통신영이나 무속도 그에 못지않은 우리 사회의 무의식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민속신앙과 무속은 한국의 근대성을 인정해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김금화 민신을 주제로 이어는 무엇인가?

김금화 민신은 먼저 실형으로 이어져 내림굿을 받은 거의 마지막 큰 무당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김금화 민신처럼 전통 궂에 뛰어나고 자태가 아름다운 분도 드물다. 그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분단과 세미운동을 지나면서 시대 변화와 가장 치열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경우이며, 다른 어떤 무당보다도 그 역사를 의식하며 산 분이기도 하다. 새마을운동과 미신태파운동을 거치면서, 김금화 민신은 무속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다. 이 영화는 그런 그녀의 평생에 걸친 노력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굿-코원」이라고 연금한 바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달라.

〈만신〉을 제작하다가, 1980년대 김인희 선생이 기획한 굿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이 영상을 보면, 굽이 원진히 고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코원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 할머니, 아줌마, 아이, 환자들의 해방구이다. 해방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무당과 사람들이 함께 웃고 울고 춤추고 음식을 나누면서, 화해와 용서로 공동체를 다지는 것이다. 그래서 굿판에서는 다양한 금기 타파가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그런 문화를 상상하기 어렵다. 굽은 정치적 코원은 아니지만, 일제가 집중 감시했던 것처럼 문화적 통합력이 매우 강한, 권력이 충분히 싫어할 만한 공동체 문화였다.

〈만신〉은 기존의 단편 〈그날〉(2011)과 〈걸월길〉(2012) 두 편을 토대로 했지만 대중을 위해 더욱 천결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대중을 위해 천결하게 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관객이 바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관객은 작가의 잘난 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적절하겠다.

불필요하게 어렵지 않으면서, 세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작가의 어려움이자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김금화 민신을 이용한 것이라면, 김금화 민신도 미디어와는 것이다. 김금화에게 미디어는 다양한 목표 중 하나였다”라는 내용이 흥미로웠다. 무속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그리고 미디어 작가로서 고민은 무엇이었나?

신령과 전기, 무선(wireless)과 영매 사이에는 이미지의 깊숙한 연결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의 온갖 무선 전파와 통화, 영상 등을 비가시적인 힘의 교류에 대한 인류의 오랜 열망이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와이파이는 염려와 경계 무관하지는 않다. 정보통신기술이 비록 전쟁기술이나 사회통제를 위해 더 많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기술 이전에 주술이 있었다는 것, 주술이 기술로 연결되는 맥은 충분히 흥미로운 연구거리이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굽을 보지만, 거꾸로 굽을 영화로 확장한 것이라는 점을 관객이 생각했으면 했다. 〈만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설명에 그치는 고기·재연이 아니라, 드라마와 다큐가 어떤 살아있는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 굽과 영화가 적극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영화적인 동기를 발명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장면에 김새론이 혈장을 받는 장면, 특히 김금화 민신, 나이가 한국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죽은 죄를 산 죄로 만든다는 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 장면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압축해서 담으려 했다. 그중에서도 이 영화가 가장 연약하고 외로운 소녀 무당 ‘님세’에 대한 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온갖 구박과 따돌림을 받는 넘세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당으로 공인되는 반전이야말로, 여성진혼사가 승리사로, 무당에 대한 친대가 공경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무속에 대한 우리 관념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무당을 회회화하길 좋아하지만,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점점에 찾아 가는 것과 같다.



영화 <만신> 스틸 컷 104분 2013 (사진: ⓒ엣나인필름 제공)



영화 <만세> 포스터 (사진: ©엣나인필름 제공)

무속은 한국과
아시아의
다신교이며, 가장
민족적인
종교문화이다.
그것의
동시대성도
다시적·다원적
세계상과
민족성이 있을 것
같다. 지구촌처럼
고민·저체에
회기(회기)를 느낄 때,
우리로 오래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있을까?

오늘날 무속이 유효한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동시대 무속은 많이 부패했고, 미신적인 요소도 많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다른 종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제도화된 거대 종교의 부패상은 훨씬 규모도 크고 조직적이다. 성인의 가르침과 제도로서의 종교가 전혀 다른 것이듯, 전통무속의 가치와 무속의 실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무속은 한국과 아시아의 다신교이며, 가장 민족적인 종교문화이다. 그것의 동시대성도 다신적, 다원적 세계상과 민족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처럼 문명 전체에 위기를 느낄 때, 우리는 오래된 정신문화에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무속만이 아니라 불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다. 신의 절대성과 생명의 신비, 우주에 대한 상상 등을 이성과 과학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속의 강점은 공동체적인 카타르시스와 화해의 윤리에 있는 것 같다. 무속은 속된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성스러움을 추구한다. 성숙(聖俗)의 독특한 결합이 무속의 매력이다. 그런 전통 무속문화가 앞으로 계속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술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미술사의 흐름에서도 무속, 사면문화에 관심을 가진 작가가 많은 것 같다.

박상광, 이우환, 백남준, 오윤, 민정기 등은 모두 무속에 대한 관심을 기졌다. 백남준은 자신이 무당이 되어 굽을 했고, 오윤은 궁만한 예술을 못한다고 한탄했다. 동시대에는 이불, 최정화, 운동구, 배영환, 임홍순, 김상돈, 김해인 같은 작가들이 모두 굽과 무속에서 착안점으로 영향받았다. 나는 (주관적인 것으로 들리겠지만) 박이소의 어떤 작품에서도 무속의 기운을 느낀다.

이번 미디어비엔날레 주제가 '아시아 고딕'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들었다. 국제적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아시아 고딕'은 주제도 제목도 아니고, 전시의 흐름을 구성하는 키워드에 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제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원혼을 불러내 그들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나도 궁금하다. 아직 주제들이 허나의 틀로 들어오진 못한 단계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또는 그것으로 표현되는 어떤 위기상황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지, 또 별다른 대안이 안보이는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용기나 열정을 끄집어 낼 수 있는지가 전시의 주 관심사이다. 아시아 작가가 반 이상 참여할 텐데, 그것은 아시아의 각 지역이 많은 경험/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성(性)'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또 다른 터를 양산하는 않을까?

나는 '아시아성'에는 관심도 없고, 아시아성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아시아 문화이론이나 동아시아 역사의 재구성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정체성보다는 유사성과 모순적인 복합성이 중요하다. 아시아는 경험과 역사를 공유하는 복잡하고 애매한 흐름이다. 1950년대 다케우치 요시미는 이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든지, '서구의 되감기'(평등이나 민주주의 같은 서구 근대의 진보적인 가치들을 더 급진화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아시아)라는 이야기를 한다. 왕후이는 아시아나 동양이 서구의 상대개념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시아는 이미 서구이고, 동시에 서구가 아니다라는 식이다. 이런 시각은 이미 정치성 차원에서 동서 구분이나 달힌 아시아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매우 인류 보편적이다. 아시아 담론이 서구라는 터를 발명할 것이라는 얘기는 시작도 하지 않은 얘기에 걱정부터 하는 꼴이라고 본다. 아시아는 정치철학이나 문학비평 일부에서 논의된 것이 전부이다. 적어도 한국의 현대미술에서 사실상 어떤 분석적인 얘기도 되어본 적이 없다. 트렌드라도 된다면 좋겠다. 나는 아시아 얘기를 자주 하면서도, 대만과 베트남에 올해 처음 기뻤다. 독일에는 열 번도 넘게 갔는데 말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미디어시티 서울 2014>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면한 일이다. 다음 작업은 비엔날레 오픈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려고 한다. 갑자기 다른 주제로 작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 작업은 인기를 얻고 싶었던 나머지 깊이가 부족한 것이 많다. 다음에는 좀 더 깊이있는 작업을 하면서 인기도 끌고 싶다.